

##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련성 분석\*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and  
Environment Factors on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of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김선희(Sun-Hee Kim)<sup>1)</sup>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factors (young children's self-esteem and language abil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mother's acculturation, parenting, and teacher's multi-cultural education attitude)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150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of aged 3, 4, and 5, their mothers, and 108 classroom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reveal the following : (1) Mother's integrative acculturation significantly affected mother's parenting. (2)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cculturation and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are significantly mediated by mother's parenting and the young children's self-esteem. (3) Young children's language 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degree of 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Key Words** :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 유아교육기관 적응(adjustment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문화적응(acculturation), 양육행동(parenting), 자아존중감(self-esteem), 언어능력(language ability).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BO0559).

<sup>1)</sup> 가야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ya University, 60 Samgye-dong, Gimhae-si, Gyeongsangnam-do 621-748, Korea  
E-mail : kremedy@hanmail.ne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한다(조영달, 2006). 최근 들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정 실태조사(김승권 · 김유경 · 조애저 · 김혜련 · 이혜경 · 설동훈 · 정기선 · 심인선, 2010)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분포가 6세 미만인 경우가 66.5%,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6~11세가 23.9%, 12세 이상이 9.6%로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아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교사 및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주어지는 다양한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Jewsuwan, Luster 그리고 Kostelink(1993)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응적인 유아는 타인을 돕고 협력하며, 즐거운 생활과 긍정적인 정서 상태 유지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자신감 있고 주도적이며 독립적인 자아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일과를 잘 따르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이후의 또래관계 문제 및 행동문제 등을 예측한다(Ladd & Price,

1987; Schmidt, DeMulder, & Denham, 2002)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구효진 · 최진선, 2007; 박미경 · 엄정애, 2007; 서현 · 이승은, 2007)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낮은 언어능력 발달수준, 수동적 또래관계, 낮은 자존감, 문화적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나, 몇몇 연구(구수연, 2007; 김수연, 2007; 김희태 · 권영덕, 2007; 박경자 · 김송이, 2007; 윤갑정 · 고은경, 2006)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일반 유아와 비교하였을 때 발달수준에서 차이가 없으며 유아교육기관 적응에도 별다른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해석함에 있어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적응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측컨대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아닌 일반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박희숙 · 이승은, 2007; 송진숙, 2004; 유우영, 1998; 임말자 · 최경순, 2003)에서 보여주듯이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수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 ·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유아라고 해서 모두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적응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적응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생태학적 모델에 의하면 개인의 발달

과정은 환경과의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Bronfenbrenner, 1986). 따라서 적응은 유아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는 가정,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일반 유아와 동일한지 아니면 그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요인들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을, 환경적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다문화교육태도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적응수준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유아 개인적 특성으로 주목받아 온 요인이다(Harter & Pike, 1984).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평가이며, 인지능력, 신체능력, 또래수용, 어머니 수용에 대한 유아자신의 지각을 의미한다(Harter & Pike, 19984).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특히 유아기의 경우, 자신에 대한 지각은 신체적 특징이나 활동능력 등 외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경향성이 있다(Shaffer, 2005).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또래와 다른 외모와 낮은 언어능력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음(박경자 · 김송이, 200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언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박미경 · 엄정애, 2007; 서현 · 이승은, 2007; 정은희, 2004; 최정아, 2008; 황상심, 2008)에 의하면 이들은 구어능력과 문해능력을 포함된 전반적인 언어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상의 문제는 여타 다른 발달영역인 사회적 능력, 인지 및 학업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에 대한 다수의 연구(송진숙, 2004; 유우영, 1998; 임말자 · 최경순, 2003; Marchand & Ellen, 1998; Rubin, Burgess, & Dwyer, 2003; Seifer, Dickstein, & Sameroff, 2001)에 의하면, 유아의 적응에 있어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장기간 접촉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 혹은 변화과정이며, 문화에 대한 통합과 차별화의 과정을 통해 가치체계의 선택적 수용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Berry, 1997)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모국문화와 주류문화 양쪽의 언어와 가치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통합적인 문화적응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의 사회적 적응수준은 높게 나타난다(Calzada, Brotman, Huang, Bat-Chava, & Kingston, 2009).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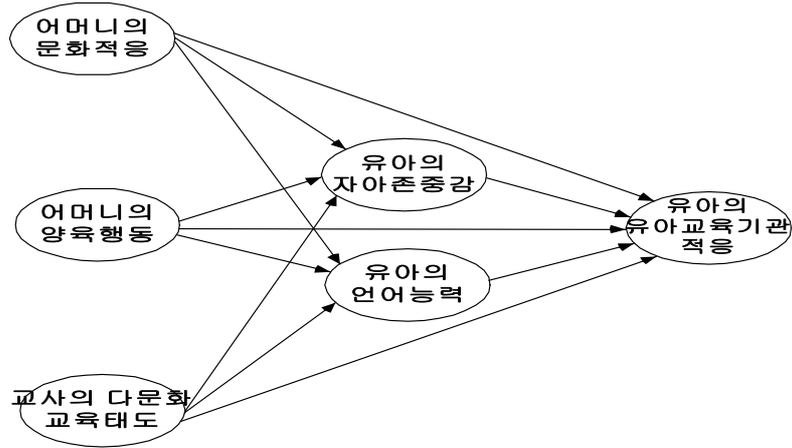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은 한국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홍달아기·채옥희, 2007).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적응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그 어머니가 한국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들 통해 밝혀져 왔다. 일반적으로 애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은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다(이영숙·서소정, 2006; Abidin, 1992; Belsky, 1984; Chen, Rubin, & Li, 1997).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수준도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며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권복순·차보현, 2006; 김오남, 2005). 따라서 이들은 자녀와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교육적이고 훈육적인 양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김경숙·공진희·이민경, 2007)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아에게 있어 가정환경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환경이 유아교육기관이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아의 적응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의 보완적 기능이 특별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으

로 예측된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있는 것으로 보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교육이며, 인간과 집단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문화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교육이다(교육부, 1999).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유아들의 다문화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정선희, 1997). 따라서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현실점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 및 환경적 요인(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 및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적 연구모형은 6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되며, 이들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는 각 잠재변수의 하위영역들(측정도구 참조)로 구성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적응에 대해 환경적 요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적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어머니의 문화적응, 양육행동, 교사의 다문화교육 태도)은 외생변수로서 2가지 내생변수인 유아 개인적 요인(자아존



<그림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요인들 간의 가설적 연구모형

중감, 언어능력)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 개인적 요인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언어능력), 그리고 환경적 요인(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언어능력)과 환경적 요인(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73개 기관에 다니는 만 3~5세 다문화가정 유아 150명과 유아의 어머니 150명, 그리고 유아의 담임교사 108명이다. 여기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아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2. 변인측정

#### 1)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Jewsuwan, Luster, 그리고 Kostelnik(1993)가 개발한 ‘유치원 적응 질문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김영희(1996)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친사회성 5문항(문항 예 :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정서상태 4문항(문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	특 성	구 분	빈도(%)
유아의 성별	남아	88(58.7%)	유아의 연령	만 3세	38(25.3%)
	여아	62(41.3%)		만 4세	60(40.0%)
어머니의 출신국가	일본	51(34.0%)		만 5세	52(34.7%)
	중국	43(28.7%)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17.3%)
	필리핀	29(19.3%)		고졸	81(54.0%)
	베트남	27(18.0%)		전문대졸·대졸	41(27.3%)
		대학원졸		1( 0.7%)	
어머니의 연령	20~25세	5( 3.3%)	무응답	1( 0.7%)	
	26~30세	32(21.4%)	가정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21(14.0%)
	31~35세	50(33.3%)		100~200만원 미만	89(59.3%)
	36~40세	41(27.3%)		200~300만원 미만	34(22.7%)
	41세 이상	21(14.0%)		300만원 이상	5( 3.3%)
	무응답	1( 0.7%)		무응답	1( 0.7%)
거주지역	도시(중소도시)	87(58.0%)	교사의 연령	20~25세	17(15.7%)
	농어촌	63(42.0%)		26~30세	44(40.7%)
교사의 경력	1년 미만	6( 5.6%)		31~35세	14(13.0%)
	1년 이상~3년 미만	27(25.0%)		36~40세	17(15.7%)
	3년 이상~5년 미만	23(21.3%)		41세 이상	16(14.8%)
	5년 이상~10년 미만	35(32.4%)	교사의 다문화유아 교육경력	1년 미만	49(45.4%)
	10년 이상	17(15.7%)		1년 이상~2년 미만	42(38.9%)
		2년 이상~3년 미만		12(11.1%)	
		3년 이상		5( 4.6%)	

항 예 : 편안하며 안정적이다), 또래적응 6문항(문항 예 : 친구들과 같이 놀기를 좋아한다), 자아상태 6문항(문항 예 : 자신감이 있다), 일과적응 7문항(문항 예 : 하루하루의 일과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의 5가지 영역의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5점의 평가범주(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점 :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하위 영역별로 .85, .82, .90, .91, .91이었다.

2)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화와

고진영(2006)이 표준화과정을 통해 개발한 ‘자아개념검사(Self-Concept Inventory : SCI)’ 유아용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그림을 제시하고 유아 자신에 대한 지각을 유아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능력(문항 예 :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 친구관계(문항 예 : 나는 친구가 많다), 부모관계(문항 예 : 부모님은 나를 좋아한다), 언어(문항 예 : 나는 글을 잘 읽을 수 있다), 수학(문항 예 : 나는 숫자를 잘 셀 수 있다), 일반자아(문항 예 : 나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4점의 평가범주(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그렇다, 4점 : 아주 그렇다)로 구성된다.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은 하위 영역별로 각각 .68, .70, .68, .72, .72, .75이었다.

### 3) 유아의 언어능력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성태제 그리고 이윤경(2003)이 표준화과정을 통해 개발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유아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도구로서 수용언어영역 45문항과 표현언어영역 45문항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수준이 2~6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각 문항별 획득점수를 ‘언어발달연령 산출표’에 근거하여 수용언어 발달연령 점수와 표현언어 발달연령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의 점수범위는 1~60점이다.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은 하위 영역별로 각각 .92, .90이었다.

### 4)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rry (2001)가 개발한 ‘동아시아 문화변용 척도(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를 한지은(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4가지 영역의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적응적인 문화적응 유형으로 알려진 통합의 5문항(문항 예 : 나는 한국 사람과 모국 사람 모두에게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5점의 평가범주(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

이다, 4점 :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설문지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각 나라 출신의 전문번역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65이었다.

### 5)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연과 이숙(1992)의 ‘양육행동척도’와 Block(1984)의 ‘양육행동 보고서(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CRPR)’의 척도를 참고로 유우영(1998)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애정 7문항(문항 예 : 자녀를 껴안아주고 다독겨려 준다), 거부/통제 7문항(문항 예 : 화가 날 때 자녀에게 화풀이 한다), 과보호 7문항(문항 예 : 자녀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 일관성 7문항(문항 예 : 자녀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독립성지향 6문항(문항 예 : 자녀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의 5개 하위 영역의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5점의 평가범주(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점 :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설문지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각 나라 출신의 전문번역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각각 .87, .78, .64, .65, .82이었다.

### 6) 교사의 다문화교육태도

교사의 다문화교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Ponterotto, Baluch와 Greig(1998)의 ‘교사다문화태도검사(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s Survey; TMAS)’를 윤현숙(2008)이 수정·번안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사의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20문항(문항 예 : 교사는 유아의 문화적 배경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5점의 평가범주(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점 :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3번, 6번, 12번, 15번, 16번, 19번, 20번 문항은 역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육 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값은 .85이었다.

### 3. 자료 수집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자료 수집은 경남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77개 기관에 재원중인 만 3~5세 다문화가정 유아 184명과 그 어머니 184명, 그리고 유아의 담임교사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교사의 다문화교육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교사용 설문지는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어머니의 문화적 적응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어머니용 설문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과 동봉하여 유아를 통해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또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언어치료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검사자 4인이 면접방법을 훈련받은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유아를 직접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총 184부의 설문지 중에서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가 함께 회수되지 않은 경우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1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 14.0 프로그램과 AMO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유아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중심으로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유아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간의 관련성의 경우, 각 변인의 하위영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자아존중감은  $r = .17(p < .05) \sim .25(p < .01)$ 의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능력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r = .17(p < .05) \sim .28(p < .001)$ 의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표 2>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유아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b>																				
1. 친사회성	1.00																			
2. 정서상태	.63***	1.00																		
3. 또래적응	.73***	.81***	1.00																	
4. 자아상태	.55***	.71***	.69***	1.00																
5. 일과적응	.78***	.69***	.72***	.65***	1.00															
<b>유아 개인적 요인</b>																				
<b>유아의 자아존중감</b>																				
6. 신체능력자아	.06	.10	.15	.06	.13	1.00														
7. 친구관계자아	.22**	.17*	.16	.05	.20*	.55***	1.00													
8. 부모관계자아	.16	.14	.12	.02	.16	.64***	.61***	1.00												
9. 언어자아	.13	.25**	.22**	.17*	.17*	.56***	.57***	.58***	1.00											
10. 수학자아	.09	.17*	.15	.11	.11	.66***	.58***	.59***	.66***	1.00										
11. 일반자아	.12	.11	.14	.02	.17*	.68***	.74***	.62***	.59***	.62***	1.00									
<b>유아의 언어능력</b>																				
12. 수용언어	.17*	.13	.09	.06	.18*	-.09	-.17*	.03	-.18*	-.04	-.11	1.00								
13. 표현언어	.19*	.28***	.20*	.15	.25**	-.01	-.20*	.03	-.14	-.04	-.10	.78***	1.00							
<b>유아 환경적 요인</b>																				
<b>어머니의 문화적응</b>																				
14. 통합	.16*	.13	.08	.11	.20*	.10	.11	.13	.07	.08	.18*	.12	.09	1.00						
<b>어머니의 양육행동</b>																				
15. 애정	.08	.10	.13	.05	.14	.21*	.17*	.13	.17*	.18*	.24**	.02	.08	.27***	1.00					
16. 거부/통제	-.04	-.04	.03	.05	-.02	-.07	-.15	-.17*	-.12	-.10	-.13	.11	.10	-.23**	-.30***	1.00				
17. 과보호	.01	.03	.07	.01	.04	.01	.02	-.01	-.03	.06	.01	-.04	.02	-.10	-.13	.45***	1.00			
18. 일관성	-.07	-.02	-.08	-.08	-.05	.09	.03	.05	-.03	-.01	.11	.02	.03	.28***	.37***	-.42***	-.36***	1.00		
19. 독립성지향	-.04	-.10	-.08	-.02	-.09	-.03	-.05	-.16*	-.14	-.17*	.00	.05	-.02	.15	.36***	-.15	-.32***	.37***	1.00	
20. 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	.18*	.13	.07	.14	.26**	.03	.14	.08	.01	.00	.11	-.12	-.03	-.10	.06	-.08	.03	-.10	-.13	1.00
<b>M</b>	3.55	3.55	3.51	3.29	3.61	3.52	3.51	3.68	3.45	3.52	3.46	50.72	49.81	3.34	3.80	2.62	2.53	3.28	3.66	3.55
<b>SD</b>	.72	.74	.72	.77	.73	.50	.55	.42	.57	.55	.57	11.57	11.93	.55	.62	.63	.53	.44	.63	.40

\* $p < .05$ . \*\* $p < .01$ . \*\*\* $p < .001$ .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환경적 요인 중의 하나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성( $r = .16, p < .05$ )과 일과적응( $r = .20, p < .05$ )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태도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성( $r = .18, p < .05$ ), 일과적응( $r = .26, p < .01$ )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의 경우, 일반자아와 어머니의

문화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 $r = .18, p < .05$ )이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의 경우, 애정은 부모관계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과  $r = .17(p < .05) \sim .24(p < .01)$ 의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거부/통제는 부모관계자아와 유의한 부적상관( $r = -.17, p < .05$ )이, 독립성지향은 부모관계자아( $r = -.16, p < .05$ )와 수학자아( $r = -.17, p < .05$ )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교사의 다문화태도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아의 언어능력은 환경적 요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 그리고 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를 제외한 환경적 요인(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은 각 하위영역별로 다스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적 요인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교사의 다문화교육태도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 2.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추정한 다음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5가지 잠재변수(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언어능력, 어머니의 문화적응, 어머니의 양육행동)중에서 단일 측정변수를 가지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제외한 4가지 잠재변수에 대한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이론적 개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잠재변수는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변수의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잠재변수를 척도화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준거변수 설정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 가운데 하나를 1로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1로 고정된 측정변수를 준거변수라고 한다(배병렬, 2009).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별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값을 가지는 측정변수인 일과적응, 일반자아, 수용언어, 애정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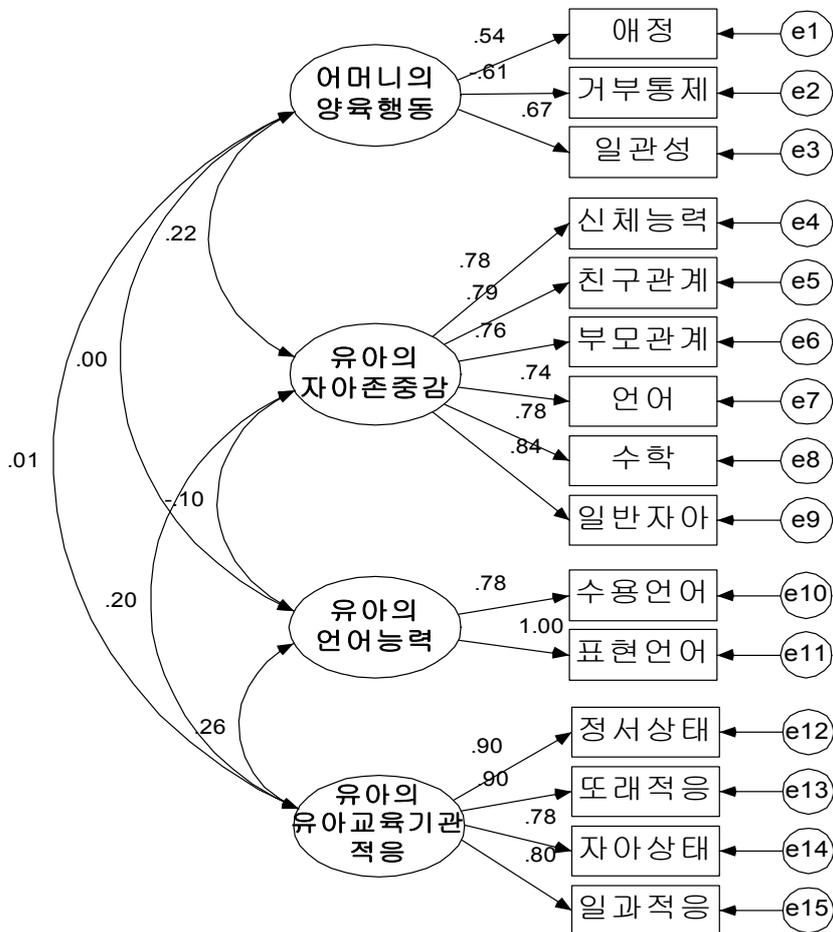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적합도 지수는  $\chi^2$  통계량, RMSEA, GFI, TLI, CFI이다.  $\chi^2$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G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이상적이며, RMSEA는 0.05 이하인 경우 가장 이상적이나 0.08 이하 정도까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언어능력의 측정변수의 하나인 표현언어의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타나는 'Heywood case'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Heywood case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수를 제거하거나 오차분산을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으로 고정하게 되는데(배병렬, 2009),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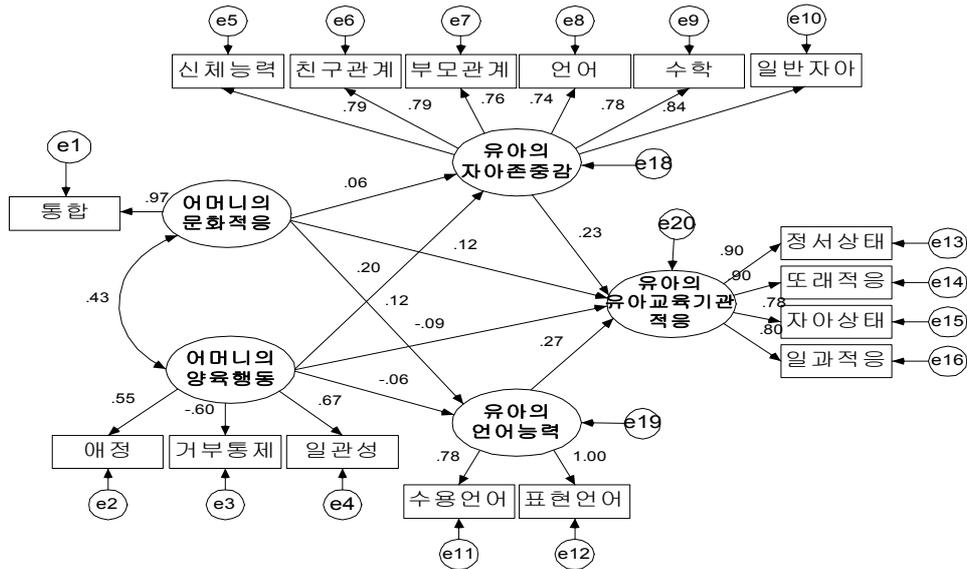
수를 제거하지 않고,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33.6(df = 170)$ ,  $p < .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 = .07, GFI = .85, TLI = .91, CFI = .93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GFI지수의 값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정지수(M. I. : modification index) 및 모수변화(Par Change)를 고려하여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를 살펴본 결과, 유아적응의 측정변수 중의 하나인 친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측정변수인 과보호와 독립성지향의 오차분산이 여러 다른 잠재요인에 cross-loading(어떤 측정변수가 2개 이상의 잠재변수에 적재되는 것)되어 있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3가지 측정변수를 제거한 뒤 측정모형 분석을 최종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를 다음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24.6(df = 85)$ ,  $p < .01(p = .0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RMSEA = .06, GFI = .90,



<그림 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그림 3>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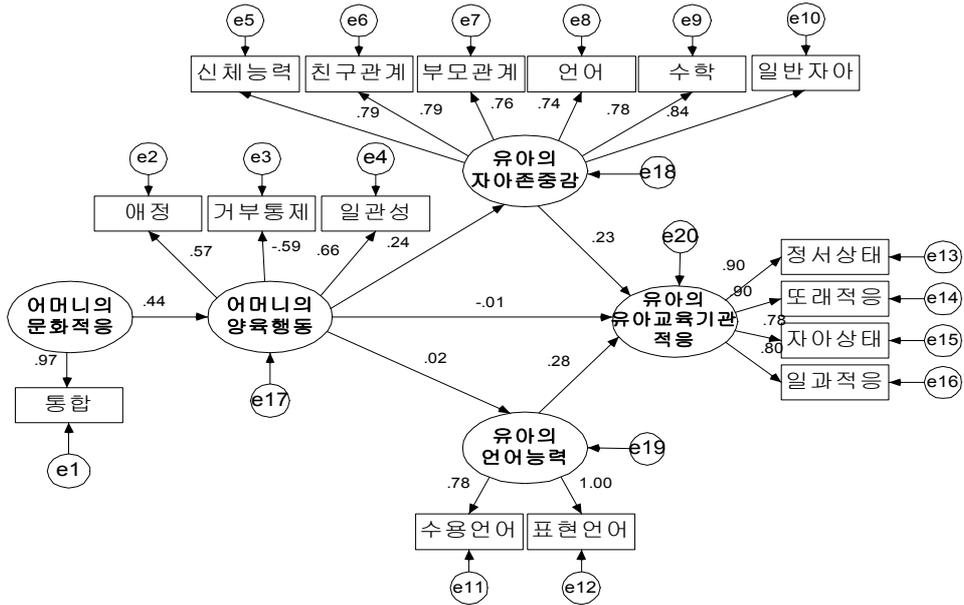
TLI = .96, CFI = .97로 나타나  $\chi^2$ 통계량을 제외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가지 잠재변수에 대한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조모형 분석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한 가설적 연구모형과 그림 2에서 제시한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의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34.6(df = 97, p < .01(p = .0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MSEA = .05, GFI = .90, TLI = .96, CFI = .97로 나타나

$\chi^2$ 통계량을 제외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유아의 언어능력에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수정지수(M. I. : modification index) 및 모수변화(Par Change)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기 보다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설적 연구모형을 수정한 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의 수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37.9(df = 100), p < .01(p = .0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chi^2$ 통계량을 제외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가 RMSEA = .05, GFI = .90, TLI = .96, CFI = .97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그림 4>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수정된 구조모형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정된 구조모형의 잠재변수간의 경로계수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잠재변수(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언어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각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표준화계수는 .57~1.00의 범위에 있으며 모두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표준화계수 = .44,  $p < .001$ ), 양육행동의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표준화계수 = .24,  $p < .05$ ), 자아존중감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표준화계수 = .23,  $p < .01$ ), 그리고 언어능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표준화계수 = .28,  $p < .001$ )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의 표 4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mos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원 자료를 램덤으로 재표집하여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김대업, 2008).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의 문화적응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경로계수 = .44,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모두의 언어와 가치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통합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즉,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높으며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를 애정적이며 일관성 있게 대하며,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

&lt;표 3&gt;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S.E</i>	<i>C.R</i>	<i>P</i>
어머니의 양육행동 ← 어머니의 문화적응	.31	.44	.08	3.75	***
유아의 자아존중감 ← 어머니의 양육행동	.24	.24	.11	2.18	*
유아의 언어능력 ← 어머니의 양육행동	.06	.02	.37	.16	n.s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 어머니의 양육행동	-.02	-.01	.17	-.14	n.s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 유아의 자아존중감	.40	.23	.15	2.60	**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 유아의 언어능력	.13	.28	.04	3.37	***
정서상태 ←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66	.90	.05	12.61	***
또래적응 ←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95	.90	.08	12.60	***
자아상태 ←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89	.78	.09	10.49	***
일과적응 ←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1.00	.80			
신체능력 ← 유아의 자아존중감	.81	.79	.07	11.18	***
친구관계 ← 유아의 자아존중감	.90	.79	.08	11.08	***
부모관계 ← 유아의 자아존중감	.66	.76	.06	10.74	***
언어 ← 유아의 자아존중감	.87	.74	.08	10.29	***
수학 ← 유아의 자아존중감	.88	.78	.08	11.08	***
일반자아 ← 유아의 자아존중감	1.00	.84			
수용언어 ← 유아의 언어능력	1.00	.78			
표현언어 ← 유아의 언어능력	1.32	1.00	.09	15.42	***
통합 ← 어머니의 문화적응	.77	.97			
애정 ← 어머니의 양육행동	1.00	.57			
거부통제 ← 어머니의 양육행동	1.06	-.59	.24	4.39	***
일관성 ← 어머니의 양육행동	.83	.66	.19	4.46	***

\* $p < .05$ . \*\* $p < .01$ . \*\*\* $p < .001$ .

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미약하지만 간접적 영향이 확인되었다(경로계수 = .06,  $p < 0.1$ ,  $p = .08$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아지며, 이는 다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수준

을 높이게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경로계수 = .23,  $p < .05$ )과 언어능력(경로계수 = .28,  $p < .01$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유아의 언어능력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고 언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수준은 높아지며, 특히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표 4>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 어머니의 문화적응	.44**		.44**
유아의 자아존중감 ← 어머니의 양육행동	.24*		.24*
유아의 언어능력 ← 어머니의 양육행동	.02		.02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 어머니의 양육행동	-.01	.06 <sup>+</sup>	.05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 유아의 자아존중감	.23*		.23*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 유아의 언어능력	.28*		.28*

\* $p < 0.1$ . \*\* $p < .05$ . \*\* $p < .01$ .

있어 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통합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되는 유아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탐색하며 이들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적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행

동 수준은 높아지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 수준은 낮아진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모두의 언어와 가치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통합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를 애정적이며 일관성 있게 대하며,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신지연, Bayram-Ozdemir, Lee, & Cheah, 2010; Farver & Lee-Shin, 2000)와 일치한다. 신지연 등(2010)은 미국 동부지역에 이민 온 2~6세 유아기 자녀를 둔 한인 어머니 88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균형 있게 통합하는 문화적응 전략을 사용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표현을 하고 자율성을 격려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냄을 보고하였으며, Farver와 Lee-Shin(2000)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108명과 35~68개월 된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의 놀이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통합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의 놀이 및 창의성을 격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을 보고하였다. 비록 이들 연구들이 미국의 이민 가정에 관한 연구로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지만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적인 문화적응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이는 다시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수준을 높인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음(홍달아기·채옥희, 2007)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모국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균형있게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문화적응은 일차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 특히 자녀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신지연, Bayram-Ozdemir, Lee, & Cheah, 2010; Farver & Lee-Shin, 2000), 애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은 유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돕는다(김영숙, 1999; Anderson & Hughes, 1989). 자아존중감은 부모,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평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실제 경험 및 또래와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부모가 칭찬, 격려, 존중의 말과 행동을 많이 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부모가 적절한 모델링 없이 일방적 지시, 명령, 무관심과 함께 거친 말과 행동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은 다문화가정 유아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가치와

학업적 능력 및 부모 및 친구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이는 다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돕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적 문화적응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문화적 배경, 자녀의 연령, 발달양상을 다양화하여 살펴보면 몇몇 연구들에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Swenson과 Prellow(2005)은 아프리카계 미국청소년과 유럽계 미국청소년 243명을 대상으로 지지적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Dinh, Roosa, Tein 그리고 Lopez(2002)는 미국에 이민 온 히스패닉계 아동 및 청소년 3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과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나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만 5세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존감을 비교 연구한 최형성(2009)에 의하면, 일반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형성(2009)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양육의 주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박영자·김송이, 2007; 박영아, 2010; 송미

경·지승희·조은경·임영선, 2008)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상의 문제로 인해 놀이와 학습지도 및 훈육에 있어 다소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애정적 관계 수립에는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구대상의 연령, 양육행동 및 자아존중감 척도의 상이함은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해석을 어렵게 하므로 추후 연구들이 누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변인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선희(2009)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 연구는 만 3, 4, 5세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유연성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에서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것으로, 연구결과 보호요인의 하나인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은 유치원 적응유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아 개인적 특성인 자아통제력은 위험요인과 유치원 적응유연성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요인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유아개인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수준은 높다. 특히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수용언어, 표현언어, 그리고 어휘이해력 수준이 낮으며(박미경·엄정애,

2007; 서현·이승은, 2007),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유아의 30%가 언어발달지체 또는 언어발달장애에 해당되거나(황상심, 2008),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유아의 68%가 표현언어 영역에서 지체가능성(정은희, 2004)을 보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낮은 언어능력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수연(2007)은 다문화가정 유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언어이해력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양보하고 협동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 하였고, 정민영과 정정희(2010)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 유아의 언어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오재연과 송미선(2009)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개인적 기술행동, 환경적응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수준이 높아짐을 밝혔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 유아의 언어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임진숙(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서 이러한 일반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안지영(2001)은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과 더불어 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 영역 각각을 촉진시키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은 일반적인 양육행동 보다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흥미로운 대상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지하고 비계설정을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박영신, 2010), 자녀와의 의사소통시 한국어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오성숙,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오성숙, 2009;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다문화교육태도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성과 일과적응 외에는 어떠한 요인과의 관련성이 없다. 유아기는 성역할, 인종, 신체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며, 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편견들은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보다 더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다(Banks & Banks,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의 다문화태도는 유아의 다문화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정선희, 1997).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급에서 교사의 부정적인 태도는 낮은 학업성취와 소외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한석실, 2007).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교사의 다문화태도가 유아의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아마도 교사의 다문화태도가 유아의 심리적 적응 및 발달 특성에 대해 직접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다문화교육태도는 다문화교육실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정대현·장지영, 2008), 교사가 다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다문화적 효능감은 긍정적인 다문화교육

태도가 다문화교육실제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최충욱·모경환, 2007). 결국 교사의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는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실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다문화교육 보다는 다문화적 효능감과 다문화교육실제가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며,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수준을 높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응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수준은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 더불어 추후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되는 추가적 요인을 탐색하거나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 요인간의 새로운 유형의 구조적 관련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심리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양육행동 척도 또한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들의 구조적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적응을 돕는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구, 12(5), 95-124.**

구효진·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교육부(1999). **유아를 위한 세계 이해교육자료**. 서울: 교육부.

권복순·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 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김대엽(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경기도: 학현사.

김수연(2007). 유아의 기질 및 언어능력과 유아교육기관의 적응과의 관계 :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2010-06. 서울: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오남(2005).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숙(1997).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제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영태·성태제·이윤경(200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희(1996).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변인 탐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

- 의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 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박영신(2010).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함께 주의하기와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1(6), 35-50.
- 박영아(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보육 교사의 보육경험 실태. **유아교육연구**, 30(1), 197-223.
- 박희숙·이승은(200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치원 적응력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337-356.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2판)**. 서울: 청람.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송미경·지승희·조은경·임영선(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송진숙(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11(3), 167-189.
- 신선희(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적응유연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연, Bayram-Ozdemir, S., Lee, J., & Cheah, C. S. L.(2010). The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emotional outcomes of Korean immigrant mothers with different acculturation strategies. **아동학회지**, 13(1), 179-195.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숙(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 가정환경자극과 유아 언어능력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재연·송미선(2009).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243-261.
- 우현경·정현심·최나야·이순형·이강이(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 윤현숙(2008).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태도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2(1), 415-430.
- 이경화·고진영(2006). **자아개념검사**. 서울: 학지사.
- 이영숙·서소정(2006).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5), 143-155.
- 임말자·최경순(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자극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89-207.
- 임진숙(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대현·장지영(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과 실제. **유아교육학논집**, 13(1), 309-328.
- 정민영·정정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유아교육연구**, 30(3), 141-168.
- 정선희(1997).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정아(2008).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충욱·모경환(2007). 경기도 초·중등 교사들의 다

- 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39(4), 163-182.
- 최형성(2009).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30(5), 245-262.
-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 유아교사교육의 방향 모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9-53.
- 한지은(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형태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달아기 ·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황상삼(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P.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Andeson, M., & Hughes, H. M.(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 of Genetic Psychology* 150(4), 463-465.
- Banks, J. A., & Banks, C. M.(2003).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2nd ed.)*. CA : Jossey-Ba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64-176.
- Calzada, E. J., Brotman, L. M., Huang, K., Bat-Chava, T., & Kingston, S. (2009). Parent cultural adaptation and child functioning in culturally diverse, urban families of preschoolers.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15-524.
- Chen, X., Rubin, K. H., & Li, B. (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4), 663-681.
- Dinh, K. T., Roosa, M. K., Tein J., & Lopez, V. A.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problem behavior proneness in hispanic youth sample : a longitudinal mediation model.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3), 295-309.
- Farver, J. M., & Lee-Shin, Y. (2000). Acculturation and Korean-American children's social and play behavior. *Social Development*, 9(3), 316-336.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Jewsuwan, R., Luster, T., & Kostelin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Marchand, J. F., & Ellen, H. (1998). The relation of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to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and fathers. *J. of Genetic Psychology* 159, 353-367.
- Rubin, K., Burgess, K. B., & Dwyer, K. M.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chmidt, M., DeMulder, E. K., & Denham, S. (2002). Kindergarten social-emotional competence : Developmental predictors and psychosocial implica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 451-462.
- Seifer, R., Dickstein, S., & Sameroff, A. J. (2001).

Infant mental health and variability of parental depression symptoms. *J.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12), 549-559.

Shaffer, D. J. (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CA : Wadsworth/Thompson

Learning.

Swenson, R. R., & Prelow, H. M. (2005).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perceived efficacy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of supportive parenting to psychosocial outcomes among urban adolescents. *J. of Adolescence*, 28, 465-477.

---

2011년 2월 28일 투고, 2011년 5월 11일 수정  
2011년 5월 24일 채택